



JS뮤지션스그룹

우리 동네 문화아지트서 국악과 재즈가 어울리다

국악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감성만족 재즈콘서트...

전문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개관, 북구 지역의 새로운 문화 아지트로 떠오른 북구문화센터(이하 센터·광주시 북구 하서로 299)가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센터 개관을 기념해 특별히 기획된 '콘서트 인 북구' 공연에서는 최근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국악을 레게, 판소리 등 다른 장르와 접목시킨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는 실용음악단체인 JS뮤지션스그룹(총연출 김성광)이 선정돼 재즈음악으로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센터는 연면적 2841㎡(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로 공연장, 도서관, 오픈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다. 이중 377석 규모의 공연장(2층)은 전문 공연이 가능한 무대 장치·음향기기를 갖추고 있어 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서트 인 북구' 시즌 1 '한국음악, 여섯 개의 길

로 떠나는 음악여행'은 국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실험의 여정을 담았다.

4~6월과 9~11월 매달 한차례씩 열리며, 4월23일 '레게, 판소리를 만나다'로 시작한다. 이날 공연에는 노선택과 소울소스, 김윤희가 무대에 올라 레게와 판소리를 접목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5월28일에는 밴드 경로이탈이 '전통, 경로를 이탈하다'를 주제로 공연을 펼치며, 6월18일 상자루의 '코리아 집시, 음악을 유랑하다'가 예정되었다. 또, 9월10일에는 구각노리가 '국악, 재즈를 만나다'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며, 모던판소리극작소 총총의 '국악, 이야기를 노래하다'(10월22일)도 만날 수 있다.

공연의 대미는 신노이의 '코리아 뮤직, 한계를 넘다'(11월19일)로 장식한다. 공연시간은 80분이며 관람료는 5000원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실용음악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JS뮤지션스그룹은 올해 6번(5·6·9·10·11·12월 공연 예정)의 '감성만족 재즈콘서트'를 선보인다.

지난 2003년 창단한 JS뮤지션스그룹은 총연출-

북구문화센터, 다양한 장르 공연 국악 접목 '콘서트 인 북구' 시리즈 공연상주 단체 JS뮤지션스그룹 '감성만족 재즈콘서트'·시민 강좌



상자루

베이스 김성광, 재즈피아노 강윤숙, 드럼 정명훈 등으로 구성됐으며, '영화 속 재즈음악', '재즈로 듣는 가요' 등 다양한 재즈 공연으로 시민과 만났다.

정통재즈와 대중음악, 시민참여, 창작품 초연 등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된 '감성만족 재즈콘서트'는 북구문화센터의 개관을 알리고, 지역에서 활동해 온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즈밴드를 기반으로 빅밴드와 팝스합창단, 팜스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영화음악, 대중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사연을 음악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도 준비중이다.

6번의 공연 외에도 여름에는 시민들이 쉽게 실용음악을 배울 수 있는 시민실용음악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올 하반기에는 아카데미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서는 무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일상, 꿈, 염원, 민화로 말한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 5월 16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

지난 1996년 곡성에 문을 연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은 2019년 8월 기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아산조방원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이 구체화되면서 아산조방원미술관은 전남도립미술관 분관으로 재정립됐다.

지난 23일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이 오는 5월 16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 열린다.

기획전의 주제는 '일상, 꿈, 염원, 민화로 말한다'로 정했다. 조선후기에 등장해 전성기를 누렸던 민화는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던 민중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서민들 생활 속에 뿌리내렸다. 작품 속에는 다산, 부귀, 장수, 출세, 벽사 등 민초들이 꿈꾸는 것들이 담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채롭게 표현해낸 작품들 속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꿈틀거린다.



임남진 작 '감모여재도'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민화의 형식을 빌려와 우리의 일상과 꿈, 염원을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과거의 민화 속에 담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들을 우리 시대 작가들이 자신들만의 회화적 언어로 구현한 작품이다. 전통방식의 민화를 재현하기 보다는 작가들 개개인의 삶의 예찬과 일상의 기도를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다. 초대 작가는 루씨온, 서은선, 양재영, 임남진, 최순임 등 5명으로 한국화, 서양화, 설치, 판화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소녀와 고양이 등을 소재로 작업해온 최순임 작가는 몽환적인 느낌의 작품 '묵마산수 유람'을 선보이며 양재영 작가가 토끼와 용을 소재로 작업한 '별주부전'은 동화적 느낌이 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한지에 자개와 금분으로 작업한 루씨온 작가의 '서천 꽃밭'은 불교적 느낌을 풍기며 한국화가 임남진은 소주, 칫솔 등 현대적 사물을 민화적 느낌으로 해석한 '감모여재도'를 전시한다.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월요일 밤 '낭만에 대하여'

랑 현악사중주단 29일 월요콘서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두 번째 공연 '낭만에 대하여'가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랑 현악사중주단을 초청해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리예르의 '8개의 소품'을 바이올린·첼로 듀엣으로 들려주며,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노래'를 피아노 연주에 맞춰 소프라노의 노래로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를 바이올린·첼로·피아노 선율로 선사한다.

무대에는 바이올린 김재은, 첼로 윤소희, 소프라노 이승희, 피아노 반수진 등이 오른다. 랑 현악 4중주단은 지난 2009년 결성 후 나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음악회, 바하 '푸가의 기법' 전국 연주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열었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주제로 펼쳐지는 월요콘서트 다음 공연은 더블베이스 아우름의 '세계명곡시리즈'(4월 5일 오후 7시 30분)로 꾸며진다. 선착순 50명 모집. 무료관람. 문의 062-670-792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랑현악사중주단 공연 모습



"35년 광주 무용의 역사·가치 알리는 데 앞장설 것"

광주무용협회 신임회장 나인숙 씨 학문연구 통한 이론 중요성 강조



활동 및 무용이론 연구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나 신임회장은 "무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킬 생각이다"며 "학술단체인 광주무용아카데미를 재정립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회원

들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용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원들과 광주무용아카데미, 논문발표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계 연구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울러 무대연출, 공연기획, 예술경영 등을 주제로 하는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무용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나 신임회장은 또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역 무용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발굴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인무용제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저희 세대는 이제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바라지를 해줘야 해요. 젊은 무용수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무대장도는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무대 등 젊은 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들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죠. 아울러 코로나 시대 협회 홍보와 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 출신인 나 신임회장은 조선대 무용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성여고와 중앙여고에서 무용교사로 재직했다. 광주예술문화상, 광주시 교육감상, 광주무용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무용협회 부지회장을 역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